

언어 영역

제 1 교시

성명

수험번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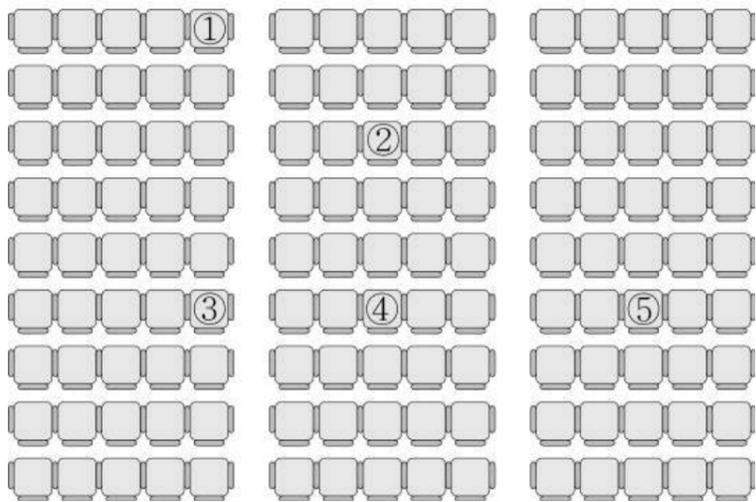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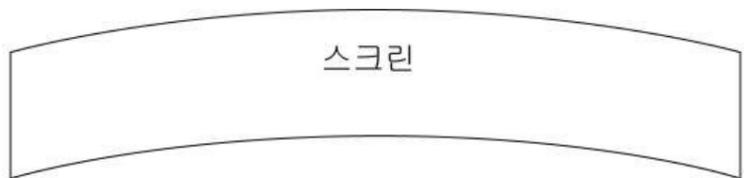
1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써 넣고, 또 수험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강의의 내용을 참고할 때, 주시(主視)가 ‘오른쪽’인 사람이 영화를 관람하기에 가장 좋은 좌석은? [1점]



2. (물음) 일화의 마지막에 들어갈 간디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여보게, 자네 신발을 벗어서 나에게 줄 수 없겠나?
- ② 걱정 말게, 나는 신발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 괜찮네.
- ③ 별로 비싸지도 않은데 뭘 그러나? 이따가 내려서 하나 사면 되네.
- ④ 누군가 저 신발을 줍는다면 두 짝이 다 있어야 신을 수 있을 게 아닌가?
- ⑤ 신발 신는 게 답답했는데, 이렇게 맨발로 다니는 것도 괜찮을 거 같네.

3. (물음)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가로막은 호흡을 돕는 기관이다.
- ② 간막이는 횡격막의 다른 이름이다.
- ③ 갈매기살은 근육질로 이루어져 있다.
- ④ 가로막의 살은 갈매기살의 어원이다.
- ⑤ 간막이와 가로막은 서로 다른 부위이다.

4. (물음) 여론 조사 결과 ‘1위’에 해당하는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②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③ 개구리 울챙이 적 생각 못한다.
- ④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다음은 인터뷰를 하기 전 사회자가 메모한 내용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1점]

- 인터넷 봉사 활동에 대해
 - 인터넷 봉사 활동의 의의①
 - 일반 봉사 활동과의 차이점②
 - 인터넷 봉사 활동의 장애 요소③
- 봉사 단체에 대해
 - 활동 내용④
 - 참여 연령층⑤

6. (물음)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 봉사 활동’을 알리는 문구를 작성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봉사,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 ② 클릭 한 번이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 ③ 남을 위한 봉사가 사회 통합을 구현합니다.
- ④ 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 ⑤ 마음이 만나는 자리, 인터넷 봉사 활동에 있습니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7번부터는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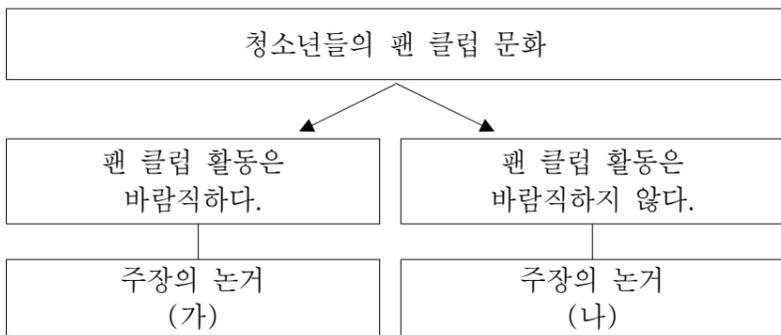
7. <보기>의 두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교우 관계’에 대한 조언의 글을 쓰려고 한다.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① 어려운 상황일수록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 ② 친구가 갖고 있는 단점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야 한다.
- ③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의 발전에 자극이 되어야 한다.
- ④ 어떤 경우에도 친구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 ⑤ 겉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아픔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8. ‘청소년들의 팬 클럽 문화, 바람직한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해 글감을 정리하였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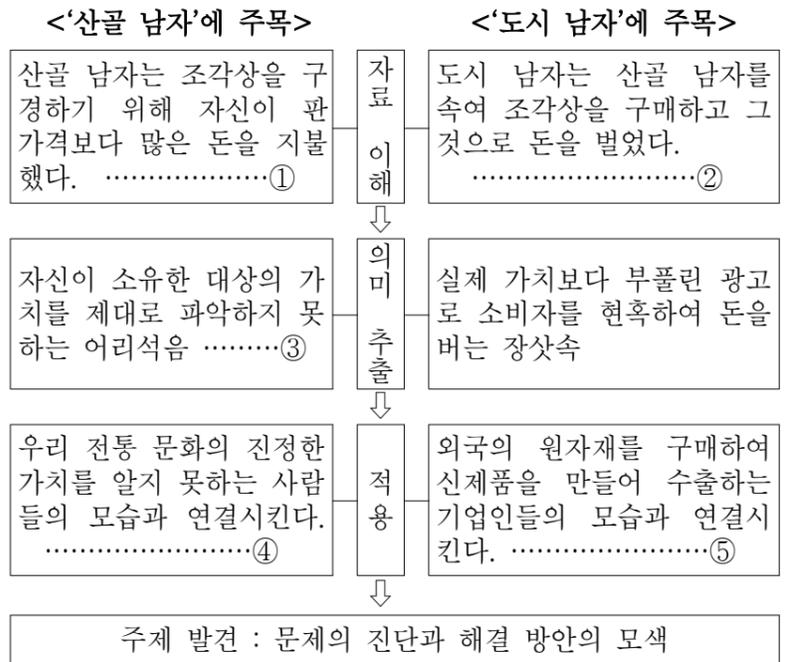


- ① (가) :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 ② (가) : 팬 클럽 활동을 통해 원만한 교우 관계를 맺고, 청소년기의 색다른 추억을 만든다.
- ③ (나) :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경쟁 팬 클럽에 가입한 친구들을 적대시한다.
- ④ (나) : 회원들 간에 다양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어 청소년기의 갈등을 해결한다.
- ⑤ (나) : 팬 클럽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9. <보기>의 우화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려고 한다. 단계별 사고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옛날 어느 산골에 오래된 조각상을 가진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조각상의 얼굴이 땅에 처박혀 있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남자가 조각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팔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무엇하러 저 투박하고 지저분한 돌덩이를 사려 하오?” 도시에서 온 사람이 의문하게 말했다. “조각상 값으로 이 은화 한 닢을 드리지요.” 그러자 산골 남자는 매우 기뻐했다. 얼마 뒤 조각상은 코끼리 등에 실려 도시로 옮겨졌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산골 남자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거리를 거닐다가 사람들이 우르르 떼지어 몰려든 가게 앞에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을 보았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조각상을 구경하세요. 거장의 경이로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단돈 은화 두 닢만 받습니다.” 결국 산골 남자는 예전에 은화 한 닢에 팔았던 조각상을 보기 위해 은화 두 닢을 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10. 주어진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현은?

<조건>

- 다음의 관점이 드러나도록 할 것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력으로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의 종계, 즐겁게 살도록 하는 일을 하자는 것이다.” -김구-
- 비유와 대구법을 사용할 것

- ① 내 고향에 쌀이 차야/ 주는 손에 정이 찬다
- ② 마음 속에 겨레 사랑/ 생활 속에 문화 사랑
- ③ 너와 내가 흘린 피땀/ 세계 속의 으뜸 한국
- ④ 남의 가슴에 칼을 꽂을까/ 모두의 가슴에 꽃을 피울까
- ⑤ 잊을 수 있을까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 있을까 그날의 상처를

11. '수목장'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은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 및 자료 제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목
내 삶 끝나는 날, 숲으로 돌아가리

I. 처음
- 묘지의 실태 ㉠
- 장묘에 대한 인식 전환의 필요성

II. 중간
1. 수목장*의 사례
- 외국의 경우 ㉡
- 우리 나라의 경우
2. 수목장의 개념 및 역사
- 수목장의 개념
- 수목장의 역사 ㉢
3. 대안으로서의 수목장
- 전통 장묘 문화의 문제점
- 수목장의 의의 ㉣

III. 끝
- 삶의 의미를 고양시키는 장묘 문화로서의 수목장 강조
..... ㉤

*수목장(樹木葬) :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위에 뿌리거나, 유골을 묻고 그 위에 나무를 심는 장묘 방식

㉠ : '묘지로 인한 산림 훼손의 실태'로 구체화한다.

㉡ : 수목장림이 운영되고 있는 스위스, 독일, 일본의 상황을 서술한다.

㉢ : 수목장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분석한다.

㉣ : 전통 장묘 문화의 문제점에 대응하는 수목장의 장점을 부각시킨다.

㉤ : 자연과 인간의 상생(相生)을 통한 삶의 의미를 강조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12. 밑줄 친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1점]

- ① 뒤엉킨 넝쿨을 뒤적거리려 참외를 찾았다.
- ② 교실 안은 우뢰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 ③ 미역국은 소고기를 넣어 끓여야 깊은 맛이 난다.
- ④ 정부의 안일한 늑장 대응이 또다시 큰 피해를 가져왔다.
- ⑤ 봄철에 가물이 들면 농사에 지장이 많고 산불도 우려된다.

13. 학교 논술반에 지원하기 위해서 쓴 '자기 소개서' 초고를 다듬으려고 한다.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순간은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학급 신문을 만들던 일이 생각납니다. ㉡학급 신문을 만들 때는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항상 ㉢설레는 추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백일장에 참가하였고 상(賞)도 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논술'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전의 글쓰기와는 달리 논술은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논술반에 지원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글쓰기를 ㉤배우려 합니다. 논술반에 들어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 ① ㉠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무척'으로 바꾼다.
- ② ㉡ :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 ③ ㉢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설레이는'으로 고친다.
- ④ ㉣ : 접속어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 ⑤ ㉤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바르지 않으므로 '배우고 싶기 때문입니다.'로 고친다.

14. <보기>를 참고할 때, 서법(敍法)에 맞는 문장은? [1점]

<보 기>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서법(敍法)'이라고 하는데, 서법에 따라서 주어나 서술어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명령법의 경우 주어로 일인칭과 삼인칭 대명사가 올 수 없고, 서술어로 형용사가 올 수 없다.

- ① 너도 예빠라.
- ② 조국이여, 영원하라.
- ③ 선생님, 내내 편안하세요.
- ④ 철수야, 부지런히 공부해라.
- ⑤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십시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 윤동주, 「길」 -

(나)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멧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넙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질푸른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매로 채찍질하면서.

- 신경림, 「동해 바다」 -

(다)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드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사십에도 궁터를 못 벗은 나를
살 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맘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지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바람이 땀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 정희성, 「길」 -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다)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직접 드러나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 내적 고뇌를 해소하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대상을 차분히 관찰하면서 대상의 본질을 탐색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개인적 체험을 확장하여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상실과 허무를 노래하고 있다.

16. ㉠~㉢의 의미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
①	동경	번뇌	집착
②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	초월적 자아
③	자아를 각성시키는 대상	본받고 싶은 대상	위안을 주는 대상
④	현실의 모순을 깨닫는 계기	현실적 삶을 일깨우는 계기	현실을 반성하게 하는 계기
⑤	도달하고 싶은 공간	자연합일의 공간	조화와 화해의 공간

17. (가)의 주제를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 발상이 가장 유사한 것은? [3점]

탐색 수단	탐색 방법	탐색 대상	탐색 목표
두 손	더듬기	주머니, 돌담	본질적 자아

- ① 손가락과 별이 부딪치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 공광규, 「별국」 -

- ② 자랑스러운손 화려한 춤 제주도/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늙은 무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진다.
- 윤근강, 「나비」 -
- ③ 거울때문에나는거울속의나를만져보지를못하는구료마는거울이 아니었던들내가어찌거울속의나를만나보기만이라도했겠소
- 이상, 「거울」 -
- ④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 갔다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 서정주, 「견우의 노래」 -
- ⑤ 어느 땐들 맑은 날만/ 있었으랴만, 오/ 여기 절정/ 바다가 바라보는 꼭대기에 앉아/ 하늘 먹고 햇볕 먹고/ 먼 그 언제/ 푸른 새로 날고 지고/ 기다려진다. - 박두진, 「돌의 노래」 -

18. (가)~(다)의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면서 의미의 긴밀성을 높이고 있어.
- ② (나)는 시행을 종결하는 어구의 반복을 통해 정서적 심화를 꾀하고 있어.
- ③ (다)의 마지막 부분의 ‘어찌랴’는 시조 종장에 자주 쓰이는 감탄사와 비슷한데, 이를 통해 시상을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
- ④ (나)와 (다)는 일상어를 주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있어.
- ⑤ (가)~(다)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19. (가)~(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필을 쓰려고 한다. 구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일상적 공간을 떠난 여행지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한다.

- ◆ 제목은 ‘일상을 떠난 자리에서 들여다보는 나의 삶, 나의 길’로 붙인다. ……①
- ◆ 여행의 동기를 현재 삶의 모습과 관련지어 서술해 본다. ……②
- ◆ 여행 과정에서 환기되는 지나온 모습을 성찰한다. ……③
- ◆ 여행지에서 느끼는 평화와 자유의 정서를 부각시킨다. ……④
- ◆ 새롭게 인식한 미래의 삶에 대한 ‘나’의 자세를 보여 준다. ……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습이 퍽퍽 막히는 더운 여름. 햇볕을 받아 뜨거워진 마당에 물을 뿌리면 한결 시원해진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지름이 약 8cm인 유리병에 물을 약간 채우고 병 안을 진공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병 입구를 습기 제거제가 든 용기로 막고 온도 변화를 측정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22℃였던 유리병 안의 온도가 놀랍게도 10초도 안 되어 0℃로 떨어졌다. 연구팀은 이를 응용해서 습기 제거 장치와 물만 있으면 냉방이 가능한 신개념의 에어컨을 만들었다. 이것이 물 에어컨이다.

물 에어컨의 원리는 물이 증발함으로써 주변 공기를 차게 만드는 것이다. 축축하고 더운 실내 공기가 에어컨 안으로 들어오면 습기 제거 장치를 거치면서 건조해진다. 그러나 온도는 높은 상태이다. 이 덥고 건조한 공기가 물이 뿌려진 그물망을 통과하면서 그물망의 물이 증발하게 되고 증발되는 물이 공기 중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춰준다. 이렇게 차갑고 건조한 상태의 공기를 에어컨 밖으로 배출해 냉방을 하는 것이다.

[A] 한편, 우리 나라의 여름은 습도가 매우 높아 습기 제거 장치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습기 제거 장치가 습기를 너무 많이 빨아들여 더 이상 공기를 건조시킬 수 없게 되면 난감해진다. 그래서 연구팀은 습기 제거 장치를 바퀴 모양으로 만들었다. 실외에서 열이나 따뜻한 공기를 공급해 바퀴의 반쪽을 말리는 동안 다른 반쪽은 습한 공기를 건조시키도록 하였다. 바퀴가 계속 회전하면서 마르는 부분과 제습하는 부분이 교체된다. 따라서 습기 제거 장치에 습기가 가득 차 성능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 습기 제거 장치를 말리는 데 사용된 열이나 외부 공기는 다시 실외로 배출된다.

이 습기 제거 장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은 습기 제거제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구팀은 기저귀에 쓰이는 고분자물질이 액체를 잘 흡수한다는 점에 (㉡), 그 구조를 약간 변화시켜 슈퍼제습폴리머를 만들었다. 이것은 기존의 실리카겔 같은 물질보다 제습 효과가 3~4배 더 크다.

기존의 에어컨은 냉매,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실외기) 등으로 구성된다. 냉매는 증발기에서 기화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고, 압축기는 기체 냉매에 압력을 높이며, 응축기는 기체 냉매를 액화시켜 열을 방출한다. 이처럼 냉매가 액화와 기화를 반복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작용을 위해 기존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로 구분된다. 이에 비해 물 에어컨은 실내기와 실외기의 구분이 없는 일체형이다. 또한 연구팀은 ‘기존 에어컨이 사용하는 전력의 5분의 1 정도면 충분히 물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프레온 가스를 회수하기 위한 실외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또 에어컨의 전기 소비의 주범인 압축기도 필요 없어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같은 냉매도 사용하지 않으므로 환경친화적이다. 물 에어컨의 습기 제거 장치를 말릴 때는 산업 폐열이나 여름철 사용량이 적어 비용이 저렴한 지역난방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남은 에너지 자원을 냉방에 재활용하는 셈이다.

20. 위 글을 읽고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기존 에어컨과 물 에어컨의 비교

	기존의 에어컨	물 에어컨
① 냉방 방식	기화	기화와 액화
② 냉방 원리	기화열이 온도를 낮춰 준다.	
③ 구조	실내기와 실외기의 구분형	실내기와 실외기의 일체형
④ 냉매	프레온 가스	물
⑤ 특징	전력 소모가 많고 환경을 파괴한다.	전력 소모가 적고 환경 친화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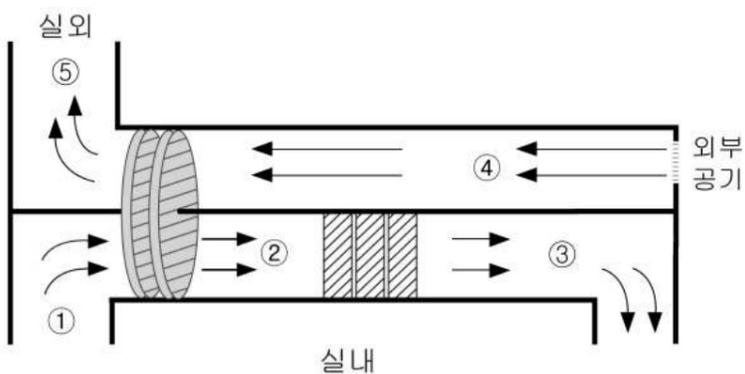
21.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사용한 것은? [1점]

<보 기>

() : ㉠ 1. 어떤 일을 주의하여 봄
 2.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음

- ① 그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 ② 자동차의 새로운 엔진을 고안하였다.
- ③ 그는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 ④ 그는 눈의 구조에 착안하여 사진기를 발명하였다.
- ⑤ 그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는 혜안을 지니고 있다.

22. [A]를 읽고 습하고 더운 공기가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바뀌는 과정을 그려 보았다. ‘덥고 건조한 공기’에 해당하는 것은? [1점]



23. ‘기술 개발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토의한 내용이다. 위 글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 ① 영수 : 기존 기술을 약간 변형해 놓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개발자의 자세로 보기 어려워.
- ② 수희 : 맞아. 기존 제품에 몇 가지 기능만을 추가하고 마치 기술 개발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 ③ 희철 : 새로운 차원의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학문적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
- ④ 철민 : 그렇지만 기술 개발의 경우 일상의 호기심과 세심한 관찰이 독창적인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 ⑤ 민영 : 난 생각이 조금 다른데. 기술을 개발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소비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기술 개발의 전제로 삼아야 해.

[24 ~ 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가 후원에 들어가, 풍경을 두루 구경하다가 한편을 바라보니, 담 밖에 수목이 무성한 곳에 수십 칸 초당(草堂)이 정결하고, 그 곳에 박 부인이 홍상채의(紅裳彩衣)를 산뜻이 입고, 아미(蛾眉)에 시름이 가득하여, 수삼 세 된 아이를 좌우에 앉히고 희롱하거늘, 용홀대 이를 보매 정신이 황홀하여 생각하되, ‘장부 세상에 났다가, 저런 미인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아니리오.’ 하고 몸을 일어, 수백 철기(鐵騎)*를 거느려 그 곳에 이르러 보니, 수목이 일시에 변하여 철기가 되어, 깃발과 창검(槍劍)이 벌리듯 하는지라. 점점 나아가 보니, 장중(帳中)에 한낱 영채(營寨)**를 세우고, 진영(陣營) 문 밖에 한 미인이 앞을 향하여 크게 꾸짖어 가로되,

“네 호국 장사 용골대의 아우 용홀대 아니다? 네 본대 오랑캐로 하늘의 뜻을 모르고 남의 나라를 침범하고, 또 감히 사부가(士夫家)의 부인이 거처하는 곳을 당돌히 범하니, 너 같은 놈은 죽여 후일을 징계하리라.”

하고 천천히 걸어 다라들며 이르되,

㉠“네 나를 아느냐?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광주 유수 이공의 부인 박씨의 시비 계화로소니, 네 선봉이 되었다가 나 같은 여자의 손에 목 없는 귀신이 될 터이니, 어찌 불쌍하고 잔인하지 아니리오.”

하며,

“내 칼을 받으라.”

하는 소래, 옥반(玉盤)에 진주(眞珠)를 구울리듯 한지라. 용홀대 바라보니, 그 미인이 머리에 태화관(太和冠)을 쓰고, 몸에 홍금사화의(紅錦紗華衣)를 입고, 허리에 측금사만대를 두르고, 손에 용문자 화검(龍文字華劍)을 들고, 완연히 섰으니, 날아가는 제비 같은지라. 용홀대 정신이 아득하고 어지러우나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정신을 차려 꾸짖어 가로되,

“조고마한 여자 엄연히 장부를 꾸짖는다? 내 너를 잡지 못하면 어찌 세상에 서리오.”

하고 다라들거늘, 계화 용홀대를 보니, 머리에 용봉쌍학(龍鳳雙鶴) 투구를 쓰고, 몸에 황금사 문갑(黃金紗紋甲)을 입고, 허리에 진홍 보호대(眞紅保護帶)를 두르고, 손에 삼백근 금강도(金剛刀)를 들었거늘, ㉠서로 싸화 사십여 합에 승부를 모르더니, 계화의 칼이 번듯하며, 용홀대의 머리 검광을 좇아 마하(馬下)에 내려지니, 계화 그 머리를 칼 끝에 끼여 들고 좌우충돌하여 사방으로 달리니, 모든 장졸이 혼비백산하여 일시에 항복하니, 계화 용홀대의 머리를 박 부인에게 드리니 부인이,

“그 놈의 머리를 높은 나무에 달아 두라. 용골대 제 아우의 머리를 보면 몹시 놀라 녀을 잃을 것이라.”

하니, 계화 영을 듣고, 후원 나무에 높이 달아 두니라.

그 후 여러 날만에 용골대 장졸을 거느리고 호기(豪氣) 있게 승전고를 울리며, 왕십리를 지나 동대문을 들어오다가, 제 아우 용홀대가 박씨의 시비 계화에게 죽음을 듣고 분한 마음이 크게 일어나, 즉시 박씨 있는 곳을 찾아가, 소리를 벽력(霹靂)같이 질러 가로되,

“박씨는 어떠한 여자완대 감히 대장을 죽이고, 또 그 머리를 나무에 달았으니, 어찌 당돌하지 아니리오. 바빠 나와 내 칼을 받으라.”

하고 달라드니, 박씨 분기를 참지 못하여 계화를 불러 가로되,

“네 가서 죽이지 말고, 이리이리 하여 간담을 서늘하게 하라.”

계화 영을 듣고 나올새, 일월국화관(日月菊花冠)을 쓰고 몸에 홍금사 나의(紅錦紗羅衣)를 입고 손에 삼 척 비수를 들고, 문 밖에 내다라 용골대의 거동을 보니, 얼굴은 무른 대추빛 같고 눈은 번개 같아, 보기에 흉악한지라. 계화 목청을 가다듬으며 꾸짖어 가로되,

“용골대야, 네 대장으로 조선에 와 날 같은 조고마한 여자에게 욕을 보고 돌아가려 하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리오.”

- 작자 미상, 「박씨전」 -

*철기 : 철갑을 입은 기병

**영채 : 군대가 집단적으로 거쳐하는 진지

24. <보기>의 관점으로 위 글을 감상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 중, 내재적 관점은 작품 자체의 내적 질서에 주목한다. 작품을 이루는 언어와 그 언어들 사이의 유기적 관계, 작품의 구조 등에 대한 분석에 주력한다.

- ①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대화와 심리를 전달하고 있군.
- ② 구체적 상황 및 대화를 통해 인물의 육성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군.
- ③ 고전에 나오는 상투적 한자어를 사용하여 전투 장면을 표현하고 있군.
- ④ 작가는 굴욕적인 역사를 허구적인 이야기로 만들어 위로받으려고 하는군.
- ⑤ ‘박씨 부인·계화’와 ‘용골대·용홀대’ 등 선악이 대립하는 인물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군.

25. ㉠에 드러난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치며 설득하고 있다.
- ② 감정에 치우친 태도로 자신의 주장을 말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상대방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④ 상대를 자극하기 위해 냉소적인 태도로 조롱하고 있다.
- ⑤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있다.

26.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동병상련(同病相憐) ② 백중지세(伯仲之勢)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자중지란(自中之亂)
- ⑤ 호사다마(好事多魔)

27. 위 글의 등장 인물이 <보기>를 활용하여 글을 쓴다고 가정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구렁에 돌아난 풀은 봄비에 절로 길어
알아야 할 일이 없으니 그것이 아니 좋겠느냐.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을 못 이겨 하노라.

- ① 용골대가 아우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
- ② 박씨 부인이 용골대에게 화친을 청하는 글
- ③ 계화가 싸움을 하기 전 용홀대를 꾸짖는 글
- ④ 용홀대가 후원에서 미인을 보고 감탄하는 글
- ⑤ 박씨 부인이 시름에 젖어 앞날을 걱정하는 글

28.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삽화를 그리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홀대의 머리를 받아 든 박씨 부인의 얼굴에서 인간적인 갈등이 엿보이도록 한다.
- ② 용홀대와 맞서는 계화의 모습은 아름다움과 용맹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③ 대장의 죽음을 목격하는 호군 장졸들의 모습은 비통함과 함께 결의도 엿볼 수 있게 한다.
- ④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용골대의 표정은 차분함과 냉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린다.
- ⑤ 용홀대가 후원에서 바라본 초당의 모습은 어둡고 불길한 분위기로 표현하여 죽음을 예감할 수 있도록 한다.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구 둘이서 중국 음식점에 갔다. 한 친구가 “난 자장면. 넌?” 하고 다른 친구에게 묻는다. 그러면 다른 한 친구는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자장면이야.” 친구의 대답을 글자 그대로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I am a jajangmyeon, too.”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나도 자장면이야.”라는 표현은 대단히 비논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문장의 ‘나도’는 ‘내가 먹고자 하는 것도’ 혹은 ‘내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문장의 일부분을 생략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누가’와 ‘무엇’이고, 그 외의 것은 별다른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한국인의 인식이 언어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인은 상황에 따라 문장의 일부분을 생략하기도 하고, 긴 것을 아주 간단하게 축약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어를 ‘상황 중심 언어’ 혹은 ‘상황 의존적 언어’라고 한다.

이런 상황 중심적 표현을 한 가지 더 살펴보자. 찬바람이 뽀뽀 부는 겨울에 방문을 열어 놓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은 “문 좀 닫고 들어와.”라고 표현한다.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투명 인간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올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을 들은 서양인들은 한국인의 사고 구조에 대해 대단히 의심스러워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그 상황에서 ‘한 개인의 출입’보다 ‘문을 닫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을 앞에 두어서 ‘강조’하려는 심리가 언어 관습으로 ㉠굳어진 것이다.

대화에서 물음에 대한 “예”, “아니요”의 대답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 ㄱ. “이것이 연필입니까?”, “예.”
 ㄴ. “이것이 연필입니까?”, “아니요.”
 ㄷ. “이것이 연필이 아십니까?”, “예.”
 ㄹ. “이것이 연필이 아십니까?”, “아니요.”

ㄱ과 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런데 ㄷ, ㄹ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어의 경우 ㄷ의 완전한 대답은 “예, 연필이 아입니다.” ㄹ의 완전한 대답은 “아니요, 연필입니다.”이다. 그러나 영어식 표현이라면 ㄷ의 완전한 대답은 “예, 연필입니다.” ㄹ은 “아니요, 연필이 아입니다.”이다. 부정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다른 이유는 영어에서는 대화 상대자가 무엇이라고 묻든지 간에 대답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한 사실에 따라 대답하고, 한국어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묻는 사람의 질문에 대응한 답을 하기 때문이다.

29. 위 글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볼 수 있는가?

- ① 한국어가 지닌 표현 방식의 특징은 무엇인가?
- ② 서양인들은 한국어에 내재한 문법 질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 ③ 한국인이 한국어를 영어보다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객관적인 사실 전달을 중시하는 언어 표현에는 무엇이 있는가?
- ⑤ 한국어에 나타나는 청자 중심적인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0.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1점]

- ① 그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 ② 밀가루 반죽을 오래 두면 딱딱하게 굳는다.
- ③ 친구가 책을 빌려 주어서 책 살 돈이 굳었다.
- ④ 한번 말버릇이 굳어 버리면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 ⑤ 운동을 적당히 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조금씩 굳는다.

31. 위 글에서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언어는 무한하고 창조적인 체계이다.
- ② 언어는 연속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③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식을 반영한다.
- ④ 언어는 음성과 의미가 자의적으로 결합된 상징 체계이다.
- ⑤ 언어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32. 위 글을 참고하여 <보기>의 ㉠~㉣를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상황 :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는 아들과 이를 야단치는 아버지의 대화)

아버지 : 너 이리 와 봐라.

아 들 : ㉠왜요?

아버지 : ㉡뽀뽀 말고 이리 와.

아 들 : 왜 그러시는데요?

아버지 : 선생님께서 전화하셨다. 너 대학 안 갈 거니?

아 들 : ㉢아니요, ㉣안 갈 거예요. 대학을 안 가도 제 꿈을 이룰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 : ㉤아이구, 되레 큰소리네.

- ① ㉠처럼 축약해도 의미가 전달되니까 굳이 ‘왜 부르시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았군.
- ②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강조하다보니 ㉡와 같은 비논리적 표현이 나온 거로군.
- ③ 위 글에 따르면 부정 의문문의 대답인 ㉢는 ‘예’라고 해야 하겠군.
- ④ ㉣의 경우 가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중시하다보니 불필요한 문장 성분을 생략한 거로군.
- ⑤ ㉤를 보면 한국어는 실제 상황과 반대되게 표현할 때 의미가 더 강하게 전달되는군.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실 이 때만치 슬펐던 일이 또 있었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암만 못생겼다 해두 괜찮지만 내 안해 될 점순이가 병신으로 본
 다면 참 신세는 따분하다. 밥을 먹은 뒤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갈
 려 하다 도로 벗어던지고 바깥마당 공석 위에 드러누워서, 나는
 차라리 죽느니만 같지 못하다 생각했다.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
 저는 나이가 먹어 못 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 뒷짐으로 트
 립을 꿀꺽 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 왜 또 이러니.”

“관격이 났어유, 어이구 배야!”

“기껏 밥 처먹구 나서 무슨 관격이야, 남의 농사 버려 주면 이
 자식 징역 간다 봐라!”

“가두 좋아유, 어이구 배야!”

참말 난 일 안 해서 징역 가도 좋다 생각했다. 일후 아들을 낳
 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 오늘은
 열 쪽이 난대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

장인님이 일어나라고 해도 내가 안 일어나니까 눈에 독이 올
 라서 저 편으로 hing하게 가더니 지계막대기를 들고 왔다. 그리고
 그걸로 내 허리를 마치 들때 넘기듯이 쿡 찍어서 넘기고 넘기고
 했다. 밥을 잔뜩 먹어 딱딱한 배가 그럴 적마다 통겨지면서 뺨창
 이 곳곳한 것이 여간 켜기지 않았다.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이번
 에는 배를 지계막대기로 위에서 쿡쿡 찌르고 발길로 옆구리를
 차고 했다. 장인님은 원체 심청이 굶어서 그러지만 나도 저만 못
 하지 않게 배를 채웠다. 아픈 것을 눈을 꼭 감고 넌 해라 난 재
 밋단 듯이 있었으나 불기짜를 후려갈길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
 에 벌떡 일어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 마는 내 곱이 난 것이 아
 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벽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
 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말 한 마디 툭툭히 못 한다고 바라보는데 매까지 잡
 자코 맞는 걸 보면 짜장 바보로 알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
 하는 이까짓 놈의 장인님하곤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
 지만 사정 보아서 수염만 채고(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 때 점순
 이는 펍 기뻐했지.)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라부다!”

하고 소리를 쳤다.

장인님은 더 약이 바짝 올라서 잡은 참 지계막대기로 내 어깨
 를 그냥 내려 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때엔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펍 나서 그 아래 발 있는 녀 알로 그대로 떠밀어
 굴러 버렸다.

“부러만 먹구 왜 성례 안 하지유!”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허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냐이라두
 성례시켜 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을지 모른다. 나
 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
 을 터이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짓가랭이
 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잡고 매달렸다.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아! 할아버지! 살려 줘쇼, 할아버지!!”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걸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 보다 했다. 그래두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
 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찢찢했
 다. 그러나 얼굴을 드니(눈엔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
 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 장인님의 바짓가랭이
 를 꼭 움키고 잡아나챘다.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이 때문이다. 그러
 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여느 사람이
 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숨으로 손
 수 지져 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 주고 그리고,

“올 갈엔 꼭 성례를 시켜 주마. 암말 말구 가서 뒷골의 콩밭이
 나 얼른 갈아라.”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
 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점순이를 남기고 인젠 내쫓기려니 하다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인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유!”

이렇게 맹세를 하며 부라사라 지계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나
 이 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
 다.

“아! 아! 이놈아! 놈아, 놈.”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술개미에 찬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
 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 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피잉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놈아, 놈, 놈, 놈, 놈.”

그래도 안 되니까,

“애, 점순아! 점순아!”

이 악장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
 에 뛰어나왔다.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
 서 하겠지……,

대체 이게 웬 속인지(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
 질 혼내 주기는 제가 내래 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하고, 귀를 뒤로 잡아댕기며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이어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
 [A] 다. 장모님도 덩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도 못 하게 해 놓고 장인님은 지계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내려 조졌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 김유정, 「봄봄」 -

37.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장인은 나를 징역 보낼 마음이 있다.
- ② 점순이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점순이는 나를 도와 장인에게 대들었다.
- ④ 나는 품삯을 받고 장인집에서 쫓겨났다.
- ⑤ 장모는 나와 점순의 혼례를 지지하고 있다.

38. 위 글에 나타난 사건과 ‘나’의 심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건	심리
일터로 가지 않고 마당에 드러누움	㉠
장인의 계속되는 매를 참고 견디다가 수염을 잡아챌	㉡
장인을 녀 알로 떠밀어 버림	㉢
장인의 바짓가랭이를 잡아 나꿔챌	㉣
장인의 매를 피하지 않으면서 점순이의 얼굴만 들여다 봄	㉤

- ① ㉠ :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 결판을 내고자 함
- ② ㉡ : 점순이가 나를 바보로 알까 봐 허세를 부림
- ③ ㉢ : 의도적인 행동을 통해 소망을 이루고자 함
- ④ ㉣ : 소망을 들어주지 못할망정 때리기만 하는 장인에게 몹시 화가 남
- ⑤ ㉤ : 기대를 저버린 점순이의 행동에 당황함

39. 발화 상황으로 볼 때,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자	나
②	청자	장인
③	지시 대상	장인
④	의도	비웃음
⑤	표정	고통스러워하며

40. [A]를 <보기>와 같이 시나리오로 바꾸었다. 설명이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S# 19 점순네 마당

점순 (조금 떨어져 팔짱을 낀 채로) 그럴 줄 알았어요. 고인 물도 밟으면 솟구친다잖아요.

장모 (다급한 목소리로) 뭐어! 애, 애, 점순아!

덕삼 (더 세게 힘주어 잡아당기며) 어서 혼례시켜 주세요!

장인 (충격을 받은 듯, 고통스런 어조로) 저, 저, 저, 저것이 미쳤나…….

덕삼 (조르는 듯한 어조로) 장인님 혼례 안 시키려면 차라리 징역 보내세요. 어서유.

장인 (체념한 듯) 알았어, 알았다고. 당장 성례시켜주마. 됐지? 이젠 나라, 놔.

(C.U.) 점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며, 얼굴에 웃음이 번진다.

- ①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 ② 대화로 결말을 처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 ③ 주요 인물의 태도가 바뀌어 갈등이 해소되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동원하여 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등장 인물을 추가하여 사건의 정보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

41. 위 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속성 짙은 사투리를 사용하여 현장감과 사실감을 높이고 있어.
- ② 독자들은 장인이 사위에게 봉변을 당하는 권위 추락 장면에서 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
- ③ 작가는 비참한 농촌 현실을 분석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
- ④ 장인과 사위가 몸싸움을 한다는 상식 밖의 상황과 비속어·존칭어 표현의 부조화에서 웃음이 발생해.
- ⑤ 이 작품은 데릴사위 제도를 소재로 농촌 내부의 계층 대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42~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랫동안, 사람의 진실한 마음은 심장에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우리의 영혼이 머리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에 들어서였다. 프랑스의 외과 의사 라 페로니는 뇌량(腦梁)이 손상된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뇌와 마음 사이에 일종의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 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을 말한다. 사고로 뇌량이 끊어진 환자는 좌뇌와 우뇌 사이에 정보 교환이 불가능하여 우뇌에서 느낀 감정을 좌뇌로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잘 익은 빨간 사과를 보고 ‘맛있겠다’라는 감정을 느껴서 입 안에 군침이 돌아도 ‘맛있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라 페로니는, 1741년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어 뇌량이 손상된 환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환자의 상처 부위에 물을 뿌렸더니 환자가 정신을 잃었고, 다시 이 물을 뽑아내자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실험 결과가 담겨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영혼이 기능을 발휘하는 부위’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마음과 뇌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실험은 지금 생각해 보면 환자를 전혀 배려해 주지 않은 정말로 무식한 실험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 페로니의 실험은 인간의 마음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즉 뇌 그 자체가 마음과 영혼을 구성하는 존재라는 것을 어렵듯이나마 인식하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뇌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그 기능에 대해서 탐구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서 탄생한 것이 19세기를 풍미했던 ㉡유사 과학(類似科學) 중의 하나인 골상학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골상학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곳이 머리이므로, 머리를 구성하는 두개골의 구조를 파악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정신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문이다. 이 학문은 당시에는 꽤나 그럴듯한 이론으로 받아들여져, 두개골을 계측한다는 의미의 두개계측학이라는 학문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골상학을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은 독일의 의사 프란츠-조셉 갈(Franz-Joseph Gall)이다. 그는 인간의 뇌에는 약 28개의 '기관'이 있으며 이것들은 두개골의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두개골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살인범의 뇌에는 '살인기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위가 튀어나와 살인범을 가려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라마르크의 용불용설(用不用說)에 의한 것으로 ㉔

따라서 이러한 두개골의 울퉁불퉁한 모양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종류의 지적 사고를 했는지 특징지어 준다고 생각한 것이다.

허무맹랑한 것같이 보이는 골상학에도 의의는 있다. 바로 인간의 뇌가 성격이나 정서, 지각, 지성 등의 근원이며, 뇌의 위치에 의해서 담당하는 정신 기능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는 점이다. 물론 뇌의 각 부분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문제는 뇌의 기능적 차이를 눈에 보이는 두개골의 차이에 대입했다는 것이다. 뇌의 어느 부분이 발달하든 그것이 두개골 모양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을 조정하는 부위가 '뇌'라는 골상학의 발상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골상학은 인과 관계가 부족한 결과를 주장한 점이 문제였던 것이다.

42.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라 페로니의 실험 이후 뇌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
- ② 뇌의 발달 정도와 두개골의 구조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 ③ 뇌의 어느 부분이 손상된 경우, 지적·심리적·감각적 활동에 이상이 생긴다.
- ④ 18세기에 들어와서 뇌와 마음 사이에 일종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 ⑤ 뇌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골상학이 한때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43. ㉔의 실험 과정과 결론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문제설정 : 마음과 관련된 뇌의 역할은 무엇일까?①
- ◆ 실험목표 : 뇌량이 좌뇌와 우뇌 등 뇌의 각 부분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본다.②
- ◆ 실험대상 : 뇌량이 손상된 환자
- ◆ 실험방법 : 상처 부위에 물을 뿌렸다가 물을 다시 뽑아낸다.③
- ◆ 실험결과 : 물을 뿌렸을 때는 의식이 없다가 물을 뽑아내자 의식이 되돌아왔다.④
- ◆ 결론 : 뇌와 인간의 마음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⑤

44.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㉔의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학인 듯하지만 과학적인 인과 관계가 부족한 것
- ② 일상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과학적 원리의 기본이 되는 것
- ③ 과학적 방법과 원리를 이용하지만 과학 발달과 관련이 없는 것
- ④ 이론의 결과가 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과학으로 판명되지 않는 것
- ⑤ 과학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

45. <보기>를 참고하여 ㉔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추리한 것은?

<보 기>

용불용설 : 동물의 어떤 기관이든지 다른 기관보다 자주 쓰거나 계속해서 쓰게 되면 그 기관은 점점 강해지고 또한 크기도 더해 간다. 따라서 그 기관이 사용된 시간에 따라 특별한 기능을 갖게 된다. 이에 반해서 어떤 기관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차차 그 기관은 약해지고 기능도 쇠퇴한다.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아져 마침내는 거의 없어지고 만다.

- ① 자주 사용하는 뇌의 기관은 커지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서, 그에 따라 두개골 역시 솟아오르거나 함몰한다는 것이다
- ② 자연은 환경에 적합하고 우수한 개체를 선택하여 번식을 가능하게 하고, 열등한 개체는 도태시킨다는 것이다
- ③ 뇌의 여러 기관과 크기 사이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여 인간의 인지 작용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어떤 기관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 기관이 갖는 기능의 정도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⑤ 특별히 돌출된 뇌의 부위를 관찰하여 다음 세대로 유전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46. 위 글의 완결성을 위해 첨가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골상학에 대한 당대 사람들의 관심
- ② 뇌의 각 부분이 담당하는 기능 분석
- ③ 라 페로니의 실험과 관련된 과학자들의 태도
- ④ 신체와 마음의 상관 관계에 대한 학계의 입장
- ⑤ 골상학 이후의 뇌에 대한 연구 동향 및 현재의 성과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그리스 철학자 벨라비스타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누구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성향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갈구하는 성향이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다. 그는 교통 체증 때문에 길거리가 꽉 막혀 있을 때에는 다른 운전자들에 대해 이유 없는 적의를 품다가도, 배를 타고 여러 시간 넓은 바다를 지나다가 수평선 위에 나타난 다른 배를 발견하면 반갑게 손을 흔드는 인간의 이중적 마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사랑의 인간, 자유의 인간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두 개의 성향 중 어느 성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가에 따라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벨라비스타 이론의 독창성은 ㉠사랑과 ㉡자유를 좌표축에 올려놓을 때 서로 반대되는 힘이 아니라 수직으로 만나는 두 개의 긍정적인 축 위에 표시한다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해서 두 가지 성향이 모두 긍정적인 성향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좌표 오른쪽의 가로축을 사랑의 축이라고 하고 위쪽의 세로축을 자유의 축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P점들은 인간의 성향을 나타내는 점이 된다. 바로 이 P점이 인간이 사랑을 추구하는 성향과 자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어떤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점이 된다는 것이다.

사랑의 인간형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식물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은 그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반대로 ㉢자유인간형에 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활 공간을 성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압박이 있다고 생각하면 최소한의 마음의 평화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다. 그에게 있어 자유란 평화로운 공간과 새로운 환경을 추구하는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론을 확장하면 좌표축에 의해 나누어지는 영역은 모두 네 영역이 되고, 각 영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영역은 ㉣'현자의 영역'인데 사랑과 자유를 동시에 지닌 사람을 나타내는 영역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다.

두 번째 영역은 '교황의 영역'인데 사랑과 권력을 동시에 지닌 사람을 나타내는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사람으로는 질투심이 많아 상대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영역은 증오와 권력을 공유하는 '폭군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인물은 히틀러와 스탈린,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 등이다.

마지막은 증오와 자유가 섞여 있는 '반항아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억압에 저항하는 증오를 지닌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프카니스탄 사람들과 아랍 저항 세력들을 생각해 보면 증오와 자유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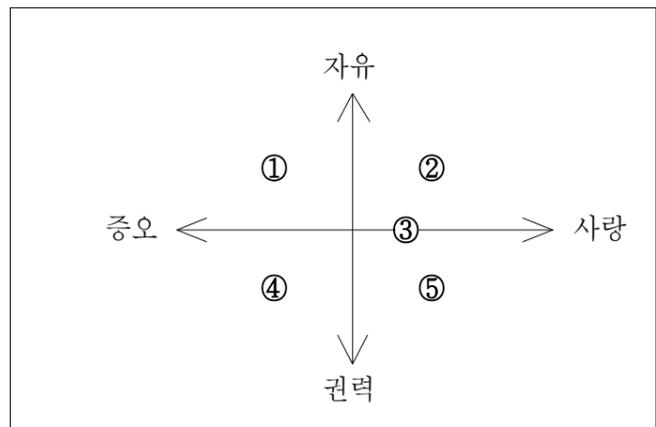
47. ㉠ : ㉡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 ① 태풍은 바닷속을 뒤집어 적조 현상을 해소한다.
- ②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서 점차 호흡기 질환이 늘고 있다.
- ③ 개미는 진딧물에게서 양분을 얻기 위해 진딧물을 보호한다.
- ④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라디오는 여전히 텔레비전보다 유용하다.
- ⑤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48. ㉢자유인간형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은?

- 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 ② 연탄재 함부로 밟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 ③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감을밖에 -정지용, 「호수1」-
- ④ 한평생 걸려서/ 수수께끼 하나 풀었습니다// “먹을수록 배고프고 허기진 것/ 나이 먹는 것” -홍윤숙, 「실소(失笑)」-
- 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 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49. 좌표에서 ㉣의 위치로 적절한 곳은? [1점]



50. 위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람의 성향을 지나치게 유형화시켜 파악하고 있군.
- ② 자유, 사랑, 권력, 증오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군.
- ③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변심한다면, P점은 빠르게 증오의 영역으로 이동하겠군.
- ④ 사람의 성향을 수치화하여 좌표에 나타냄으로써, 신과 대비된 인간의 본질을 말하고 있군.
- ⑤ 자유롭고 행복이 넘치는 이상향을 그리는 무정부주의자들이 극단적인 폭력 성향을 띤다는 모순을 설명할 수 있겠네.

[51 ~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A] ┌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이링공 더링공 흐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라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

(나) 뽕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B]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다) 3년 전 내가 집 떠나던 해 겨울에, 나는 어떤 깊은 큰 절에 있었다. 홀고의적삼을 입고 이 절 큰 방 구석에서 우두커니 쭈그리고 지낼 때에, 고향에 계신 늙은 어머니가 보내 주신 것이 지금 이 글 제목으로 붙인 ㉦‘담요’였다. 그 담요가 오늘날까지 나를 싸 주고 덮어 주고 받쳐 주고 하여, 한시도 내 몸을 떠나지 않고 있다. 나는 때때로 이 담요를 만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즉 이 글에 나타나는 감정이다.

집 떠나던 해였다.

나는 국경 어떤 정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때는 그 일이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람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고 어린 딸년까지 있어서 혈엿거나 성하거나 철 찾아 깨끗이 빨아주는 옷을 입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자리에서 결덕거리다가는, 내 집에서 지은 밥에 배를 불리고 편안히 쉬던 그때가, 바람에 불리는 갈꽃 같은 오늘에 비기면 얼마나 행복이었던가 하고 생각해 보는 때도 많다. 더구나 어린 딸년이 아침저녁 일자리에 따라와서 방긋방긋 웃어주던 기억은 지금도 새롭다.

그러나 그때에도 풍족한 생활은 못 되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생활이었고, 그리되고 보니 하루만 병으로 쉬게 되면, 그 하루 양식값은 빚이 되었다. 따라서 잘 입지도 못 하였다. 아내는 어디 나가려면 딸년 싸 업을 포대기조차 변변한 것이 없었다.

그때 우리와 같이 이웃에 셋집을 얻어가지고 있는 K란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정거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부인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때마다 그때 세 살 나는 어린 아들을 붉은 담요에 싸 업고 왔다.

K의 부인이 오면 우리 집은 어린애 싸움과 울음이 진동하였다. 그것은 내 딸년과 K의 아들이 싸우고 우는 것이었다. 그 싸움과 울음의 실마리는 K의 아들을 싸 업고 온 ‘붉은 담요’로부터 풀리게 되었다.

K의 부인이 와서 그 담요를 끄르고 어린 것을 내려놓으면, 내 딸년은 어미 무릎에서 젖을 먹다가도 텁텁텁텁 달려가서 그 붉은 담요를 끄집어오면서,

“엄마, 곱다, 곱다.”

하고 방긋방긋 웃었다. 그 웃음은 담요가 부럽다, 가지고 싶다, 나도 하나 사다고 하는 듯하였다. 그러면 K의 아들은,

“이놈아, 남의 것을 왜 가져가니?”

하는 듯이 쪼기고 달려들어서 그 담요를 뺏었다. 그러나 내 딸년은 순순히 뺏기지 않고, 이를 악물고 힘써서 잡아당긴다. 이렇게 서로 잡아당기고 밀치다가는 나중에 서로 때리고 싸우게 된다.

(중략)

나는 그 길로 거리에 달려가서 붉은 줄, 누른 줄, 푸른 줄 간 담요를 4원 50전이나 주고 샀다. 무슨 힘으로 그렇게 달려가 샀던지, 사 가지고 돌아설 때 양식 살 돈 없어진 것을 생각하고 이마를 쪼기는 동시에 흥! 하고 냉소도 하였다.

내가 지금 깔고 앉아서 이 글 쓰는 이 담요는 그래서 산 것이었다.

담요를 사들고 집에 들어서니, 어미 무릎에 앉아서

“엄마, 아파! 여기 아파!”

하고 머리를 가리키면서 울던 딸년은 허둥허둥 와서 담요를 깔 어안았다.

“엄마, 해해! 엄마, 곱다!”

하면서 푹푹 뒹 듯이 좋아라고 웃는다. 그것을 보고 웃는 우리 셋은 소리 없는 눈물을 씻으면서 서로 쳐다보고 울었다.

아, 그때 찢기던 그 가슴! 지금도 그렇게 찢긴다.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몹쓸 비바람은 우리 집을 치웠다. 우리는 서로 동서에 갈리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 딸년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시고, 아내는 평안도로 가고, 나는 양주 어떤 절로 들어갔다. 내가 종적을 감추고 다니다가 절에 들어가서 어머니께 편지하였더니,

추운 겨울을 어찌 지내느냐? 담요를 보내니 덮고 자거라. ○○가 담요를 밤낮 이쁘다고, 남은 만지게도 못하더니, ‘아버지께 보낸다’고 하니 ‘할머니 이거 아버지 덮어?’하면서 군말없이 내어놓는다. 어서 뜻을 이루어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하는 편지와 같이 담요를 주시었다. 그것이 벌써 3년 전 일이다.

그 사이 담요의 주인공인 내 딸년은 땅속에 묻힌 혼이 되고, ㉧늙은 어머니는 의지가없이 뒤쪽 나라 눈 속에서 헤매시고 이 몸이 또한 푸른 생각을 안고 끝없이 흐르니, 언제나 어머니 슬하에 뵈일까?

- 최서해, 「담요」 -

5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는 세속과 단절된 이상향을 설정하고 있다.
- ② (가), (다)에는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고달픔이 담겨 있다.
- ③ (나), (다)에는 어두운 시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담겨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과거 회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가)~(다)의 화자와 서술자는 주어진 삶에 대한 의지적인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52. (가)의 시어를 사용하여 시조 짓기를 하였다. 다음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조 건>

- (가)의 주제를 살리되,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낼 것
- 감각적 이미지를 드러낼 것

- ① 이끼 낀 쟁기를 어깨에 둘러메고 / 석양이 질 때까지 눈밭을 갈고 있네 / 자연의 한가로운 삶 부러울 것 없노라
- ② 청산에 날아드는 새들을 바라보니 / 두고 온 고향 생각 눈물이 절로 나네 / 언제쯤 고향산천을 다시 밟아 볼까
- ③ 청산에 살겠노라 바다에 살겠노라 / 산나물 캐어 먹고 굴조개 잡으면서 /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새 세계를 찾으리
- ④ 이력저력 한낫은 보낼 수 있겠는데 / 날 떠난 임 생각에 밤은 어찌 지내는가 / 임 생각 눈물짓는 나 새조차 따라우네
- ⑤ 조롱꽃 누룩 냄새 매웁기가 그지없어 / 시름 많은 날 잡으니까 아니 먹고 어찌하랴 / 청산을 찾던 나그네 꿈을 접어 버리네

53.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의 소재는 화자의 정서와 호응을 이룬다.
- ② [A]와 [B]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③ [A]와 [B]의 자연은 화자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A]에는 시간의 경과가, [B]에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다.
- ⑤ [A]는 화자와 자연과의 합일을, [B]는 자연과의 거리감을 보여 준다.

54.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서술자가 가족을 떠올리는 회상의 매체가 된다.
- ② 서술자가 처한 궁핍한 삶의 궁극적 원인이 된다.
- ③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성찰의 도구가 된다.
- ④ 서술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에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⑤ 서술자가 타인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55. ㉠~㉣ 중, ㉡에 드러난 작가의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56. (다)와 <보기>의 시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냇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너 산 깊은 금담관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 밤같이 차게 울었다//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평도 설게 올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철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 백석, 「여승」 -

- ① (다)와 <보기> 모두 어린 딸의 죽음이 등장한다.
- ② (다)와 <보기> 모두 가족 구성원이 해체된 현실적 원인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 ③ (다)에 비해 <보기>는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 ④ (다)의 서술자와 달리 <보기>의 화자는 관찰자적 성격이 강하다.
- ⑤ (다)에 비해 <보기>는 비유적 표현과 감각적 어휘의 구사가 돋보인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의 옛 그림은 단지 중국 그림을 모방한 아류가 아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중국 그림의 영향을 받아왔지만 단순히 그대로 베끼거나 모방에 그친 적은 없다.

[A] 오히려 이를 능동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그들과 구별되는 ㉠고유색 짙은 미감(美感), 독자성과 개성이 뚜렷한 화풍을 이룩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세기 초반까지 우리의 그림 속에 중국옷을 입은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중국 화가의 이름이 적혀 있다거나 과장이 심한 환상적인 중국의 산세가 나타난다는 점 등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세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느끼는 데는 연주를 듣는 것만으로도 족하나 악기를 다룰 수 있다면 스스로 연주하면서 감상할 수 있다. 똑같은 음악이라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음색이 달라지듯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붓을 다룰 줄 알았던 우리 선조들은 눈으로만 그 세계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선배가 이룩한 위대한 경지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앞선 시대의 거장의 그림을 단순히 베끼지 않고, 자기 손을 통해 거장들의 그림 세계를 ㉡추체험(追體驗)한 것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우리의 산천을 생생하게 화폭에 담은 진

경산수(眞景山水)가 크게 유행하게 된다. ‘조선의 화성(畫聖)’으로 지칭되는 화가 정선에 의해 이룩된 이 분야는 우리 나라 회화사의 빛나는 업적이다. 하지만 진경산수 전후에 그려진, 이른바 중국풍의 그림이라 간주되는 관념 산수 역시 화면의 구성이나 화풍 등에서 우리 나름의 특징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같은 재료를 사용한 음식이라도 만드는 이의 손끝에 따라 새로운 맛이 창조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미감의 차이는 한·중·일 삼국의 그림에 있어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세 나라는 각기 구별되는 독특한 그림 세계를 이룩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살펴본 우리 옛 그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우리 그림의 비어 있거나 생략된 부분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와 상상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다. 기교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국 그림에 비해 우리 그림은 ㉡논리성과 완벽성은 떨어지지만, 간략하고 단순한 화면 속에 숨어 있는 ㉢조출함이 주는 자유로움이 보는 이로 하여금 팽팽한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

둘째, 옛 그림에서 채색의 사용은 ㉣수묵 위주의 담채(淡彩)가 주류를 이룬다. 우리 산천을 그린 정선의 <금강전도(金剛全圖)> 역시, 먹과 담청(淡靑)만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잘 묘사하고 있다. ‘조선의 화선(畫仙)’으로 지칭되는 김홍도의 풍속화들도 그러하다.

물론 한국의 옛 그림 중에도 화려한 진채(眞彩)를 사용한 그림들이 없지 않다. 4세기에서 7세기 초에 걸쳐 아시아 고분벽화의 최고봉임을 보여주는 고구려 고분벽화를 필두로, 1978년 일본 야마토분가간(大和文華館)의 특별전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은 섬세하고 화사한 고려 불화, 주인공의 외모뿐 아니라 인품과 학덕 등 보이지 않는 성격까지 훌륭하게 표출해 낸 초상화와 궁중의 각종 장식화(裝飾畫), 꿈과 사랑이 어우러진 민화(民畫)가 보여주듯 채색을 잘 구사한 그림 분야도 없지 않다.

5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보 기>

ㄱ. 대상에 대한 기존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ㄴ.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지의 적절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ㄷ. 다른 사람의 견해를 인용하여 논지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있다.
 ㄹ. 서술 대상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ㅁ. 대상과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58. ㉠~㉣ 중 ‘한국 옛 그림’의 특징이 아닌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59. ㉠의 문맥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거장의 예술적 체험을 자신의 체험으로 만들
 ② 거장의 그림을 본떠서 새로운 예술 작품을 창조함
 ③ 거장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마음을 간직하고 추앙함
 ④ 거장의 그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모사함
 ⑤ 거장의 그림이 우리 그림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며 살펴봄

60. [A]를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감상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보 기>



이 그림은 이암의 <모견도>이다. 이암은 조선 종실 출신의 화가로 남송(南宋)의 모익에게서 화법을 배웠다. 그의 따뜻하고 동화적인 분위기의 동물화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이 그림은 먹의 농담을 통한 부드러운 음영으로 평온하고 한가로운 느낌을 준다.

- ① 중국에서 생겨난 동물화는 우리 나라를 거쳐 일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②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관념을 표출하기 위해서는 개나 고양이를 그린 동물화가 좋다.
 ③ 현란한 채색보다는 먹색의 농담 효과를 살린 수묵화일수록 그림의 미적 효과가 뛰어나다.
 ④ 수묵 위주의 담채라도 자연의 모습보다 인간 생활의 단면을 담아내야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이암은 모익의 영향을 받았지만 서정성이나 묘사법 면에서 그와 구별되는 한국적인 정취를 만들어 냈다.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